

통계학과 관련 통폐합 논의의 현황과 문제점

성 내 경¹⁾

1995년 5월에 발표된 교육개혁안에 부응하여 현재 각 대학마다 학부제, 계열화 등 학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본고에서는 설문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를 정리하여 국내 각 대학들의 통계 관련학과에 관련된 통폐합 논의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한다.

1. 서언

1995년 5월 31일자로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한 이래 각 대학마다 학제 개편 등 대학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학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개혁에서 제시하는 대학 개혁의 방향은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로 요약되는 바, 세부적으로 대학 모형을 다양화하고 학사운명을 자유화하며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을 상호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부각된 주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거론되고 있다.

- 현재 한국 대학들에서는 학과설치,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특성과 차별성이 없다.
- 모든 대학들의 체제가 획일적으로 서울대학을 모방하고 있다.
- 학부에 지나치게 많은 수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러한 학과 제도는 미국의 대학원에서 시행되는 세분화된 전공제도와 같다.

교육개혁안의 발표와 더불어 각 대학에서는 계열별 모집, 학부제 등의 전격적인 학제 개편 논의가 계속되었고, 한국통계학회 산하 통계교육상담연구회에서는 특히 통계학과에 관련된 통폐합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통계학회원들에게 통폐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1995년 7월 중 통계학과 관련 통폐합 문제에 대하여 각 대학의 통계관련학과에 1차 설문조사서를 보냈지만, 그 사이에 서울대학교가 자연계열 내의 과를 통합하여 학부제로 전환기로 결정하였고, 또, 교육부에서 학부제를 실시하는 소수의 대학원 중심대학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관계로 각 대학마다 통폐합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8월 중 2차 설문조사서를 발송하였고, 9월 초에 전화로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총 51개 대학에 대한 현황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10월 말 현재 각 대학마다 통폐합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 각 대학별 최종 통폐합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밝혀둔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과 통폐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시도하는 이유가 시대의 조류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는 대학평가인정제 및 교육부의 재정지원책에 부응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대체로 서울대학 등 세칭 국내 우수대학의 사례를 전형으로 삼고 비슷하게 모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1)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그러나, 교육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변화에 반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즉, 교육개혁안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학외적인 요인에 의한 학부제 등의 강요는 또다른 타율의 시작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스스로 교육개혁을 준비한 대학이 과연 몇 개의 대학이 나 될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이 시도되는 바, 이러한 전국 규모의 실험은 이제 그만 중지하고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반론이 많았다.

통계관련학과의 통폐합 문제를 조사한 결과 사립대학보다는 국립대학에서, 정상계열보다는 자연과학 계열에 소속된 통계관련학과들에서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즉, 조사된 52개 대학 중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거나 이미 학제 변경 결정이 내려진 대학은 모두 35개로서 약 67%에 이른다. 특히 14개 국립대학에서는 7개교(50%)가, 38개 사립대학에서는 12개교(31.6%)가 이미 학제 개편 결정을 하였고, 특히 사립대학 중 14개교(36.8%)는 현재 진지하게 통폐합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어떠한 형태로든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연계열에 소속된 40개 통계학과들 중 28개 학과(70%)가 통폐합의 대상이 되며, 정상계열에 소속된 12개 통계학과들 중 7개 학과(58.3%)가 통폐합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제6절 참조)

이하 본고에서는 통계관련학과에 한정하여 통폐합 문제를 다루며, 통계관련학과가 학부제로 편입되거나, 타 학과와 합쳐지는 경우, 또는 과가 소멸되고 전공만 남는 경우 등을 통폐합이라고 지칭한다.

2. 통계학과 관련 통폐합에 대한 찬반 이유

(1) 찬성

학생들이 여러 학문 분야에 접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진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입시 지도시 학과의 특성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 교양과목을 이수하여 전공을 선택케 하는 것이 더 낫다. 전공학점의 축소, 복수전공 및 전공 변경의 허용 등 학부생에게 다양하고 개방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면 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한국에서 대학교육은 이미 대중교육화되었으므로, 심화된 전공교육은 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부과정에서는 교양 또는 타 전공에 대한 기본소양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규모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육 및 연구 능력과 환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통계학은 기본적으로 응용과학이고, 소수의 연구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계학을 복수전공 대상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부제를 도입하여 통계학 전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2) 반대

대학원 중심대학에서나 통폐합의 의미가 있는데, 교육이념이나 전통, 교육여건, 학생수준 등이 다른 각 대학이 일률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대학교육의 개혁에는 공감하지만 학과 통폐합이 그 수단이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복수전공이 가능한데 굳이 통폐합을 강행할 이유가 있는가? 현재의 틀 속에서도 제도보완으로 통폐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일시에 학제 개편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점진적으로 교과과정을 보완하는 등 상당 기간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고려되는 학부제는 과거 실험대학(계열별 모집에 2학년때 분과)의 유사모형으로 대학및 사회여건의 개선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차라리 지방대학의 특성화 등을 고려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교육 개혁안에서는 주로 미국의 대학교육 형태를 답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통계학을 포함하는 기초과학 분야에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 미국에서 기초과학 분야의 인력은 대부분 외국유학생들이다. 미국 학생들 중 공부하기 어렵고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과학자의 길을 가려는 경우는 희소하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학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수학, 물리 등 기초과학을 전공할 연구 인력이 결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통계학은 대학당국에서 유사학과로 간주하는 수학과, 전산학과 등과의 학문적 유대성 및 동질성을 교과목 운영과정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계학 그 자체가 이미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또 연구되고 있는 독자적 학문이다. 그러나 국내 통계학과들의 설립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취약한 부분이 많고, 따라서 타학과와의 통합은 통계학 전공의 위축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특히 수학과와의 통합은 통계학과의 전임교수의 수나 역사 면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위상 정립이 어려울 수 있다.

계산통계학과, 또는 전산통계학과에서는 이미 전공별로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한다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 경상계열에 소속된 통계학과에서는 통폐합 시 전공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즉, 학생들이 취업을 고려할 때 경제나 경영에 비하여 통계 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 자명하고, 또한 인문계 학생들이 통계학과 같은 수리과학을 전공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3.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형식의 통폐합이 가장 적절한가?

1995년 1학기 초 각 대학마다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시작되었고,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발맞추어 유사학과 통폐합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 초기 단계에서는 대체로 각 대학마다 통폐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유사학과들 간의 소규모 계열화 시도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6월 경 서울대학교가 대학원 중심대학을 표방하고 통계학이 소속된 자연대학 전체를 학부화한다는 결정이 알려지고, 또, 7월에는 교육부에서 대학원 중심대학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계획을 각 대학에 고지하면서 그 선결 요건으로 학부제를 명시한 이후, 보다 광범위한 학부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대학마다 상황과 여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통폐합의 진행 상황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특히 통계학과가 자연대학에 소속된 일부 국립대학들과 대규모 사립대학들에서는 서울대학교의 결정을 전형으로 간주하여 자연대학 전체를 학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조사 결과에 기초하면, 학부제의 수용을 완전히 결정한 대학은 9개로서 아직 소수이며, 대부분의 대학들이 현행 학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학과간 통폐합을 시도하든가, 또는 타 대학의 통폐합 진행 상황을 관망하면서 진로 결정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한가지 문제는 상당수의 대학들이 자신들의 여건은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서울대학교의 안을 추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학부제의 도입은 대학원 중심대학에서만 적절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인데, 한국 대학의 현실을 살펴볼 때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신속히 이행가능한 대학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각 대학별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통폐합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모델이 존재하지는 않겠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 대학의 통폐합 사례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대규모 학부제

통계학과가 자연대학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통계학을 포함한 모든 자연과학대학 내의 학과를 통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는 형태이며, 자연과학부, 기초과학부 등의 명칭을 갖는다. 이때 자연과학대

학 내에 존재하던 전산학과가 공학부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관측된다. 통계학과가 경상대학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 경제학부나 경영학부의 일 전공으로 흡수된다. 이 경우 각 전공별로 최소 학점제를 도입하여, 최소 학점(예를 들어, 서울대는 21-24학점, 이화여대는 30 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졸업시 전공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전공 분리를 3학년에 하고, 각 전공별 정원에 제한을 가하여 현재의 과 운영 방식을 다소나마 답습하려고도 하나,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학부제에서는 부전공, 복수전공, 전공 변경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각 전공별 정원을 정한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1995년 10월 20일 현재 현재 서울대학, 경북대학, 부산대학, 충남대학, 이화여자대학에서 자연계 학과에 대한 학부제를 결정했고, 성균관대학에서는 경상계 학과들간의 학부제가 도입되었다.

(2) 소규모 학부제

자연대학에 소속된 통계학과에서는 주로 수학과나 전산학과와 통합하는 형태로서, 수리과학부 등의 명칭을 갖는다. 응답자들의 반응에 의하면 통계학과와 수학과의 통합은 용인할 수 있으나, 통계학은 전산학과는 학문의 본질이 다르고 전혀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전산학과와의 통합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당국에서는 전산학과 통계학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소규모 학부제에서도 학과는 소멸되고 전공만 남는다. 소규모 학부제의 도입을 결정한 대학은 소수이나 관망 중인 대학 중에서 소규모 학부제의 도입을 검토 중인 대학들이 많다.

(3) 학과통합, 또는 계열화

학과통합은, 예를 들어, 수학과와 통계학과가 통합하여 수리과학과가 된 후 신입생 모집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규모 학부제에서의 수리과학부와는 달리 학부에서도 과가 존속된다. 추후 전공분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계열화는 소규모 학부제와 비슷하나 개별 과가 존속하는 점이 차이이다. 자연과학계열, 수리과학계열 등의 이름으로 신입생 모집을 하되 2학년, 또는 3학년 때 분과를 하는 형태이다. 1975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계열별 입시제도를 도입하여 실패로 끝난 전례가 있다. 이 경우 각 과별 최소 정원의 확보가 특징이다. 현재 계열화별 모집을 고려하는 대학은 인세대 한 곳 뿐이다.

(4) 기타

단과대학에서 각 과의 의견을 물어 서로 통합되기를 바라는 학과들을 묶어 소규모 학부제를 실시하고, 바라지 않는 과는 종전대로 단일 과로 존속하는 안이 있다. 또한, 동국대학교에서는 학부 통폐합을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되 유사과목의 통합, 필수과목의 폐지, 전공학점의 대폭적인 축소 등 교과과정을 조정하여 통폐합의 효과를 살리는 안을 결정하였다.

4. 통계학과가 통폐합 대상으로 고려되는 이유

(1) 외부적인 이유

교육부의 정책을 대학이 수용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서울대학교에서 통합하였으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이유가 많았다. 교육개혁안에서 모든 대학들이 서울대학을 모방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의 학부제를 추종하는 대학이 많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또, 통폐합을 해야 대학평가에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2) 내부적인 이유

통계학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학문이지만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의 사회적 인지도가 낮으며 국내에서는 통계학과와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학적 기반이 취약하다. 통계학 자체의 성격이 학부제에 적합하여 인접 학문분야와의 통합 여지를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통계학과 졸업생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므로 경쟁력이 낮다고 인식된다.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확률 및 통계가 한 단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계학을 수학의 일 분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또 1975년 서울대학교에서 계산통계학과를 설립하면서 통계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한 관계로, 이후 대부분의 국립대학을 포함한 많은 대학에서 계산통계학과, 전산통계학과 등의 학과명과 함께 전산과 통계를 함께 교육시켰다. 이 결과, 통계학이 전산학과 동일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산학과 통계학은 전혀 근원이 다른 학문이다. 컴퓨터의 발달로 통계학을 이용하는 어느 분야에서도 기본적인 통계 처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다. 대학 사회에서 통계학과와 존재 이유가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5. 통폐합에 대한 기타 의견

정부에서 바라든 바라지 않든 성과 위주로 획일적인 교육개혁이 강행되면, 이러한 것을 반대하는 학과의 의견이 집단 이기주의나 무책임한 보수세력의 아집으로 평가절하될 위험이 있다.

정부가 대학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는 통폐합의 논의가 타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타율적인 자율화,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없이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하려는 대학 당국의 태도, 교육부와 서울대 등 우수 대학의 정책 방향을 눈치껏 답습하는 획일성 등이 과연 타당한가? 통폐합 과정은 학문의 특성 및 학문이 발전되어 가는 경향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대학평가 및 재정적 지원 측면만을 고려하여 통폐합이 이루어져나가고 있다. 또한, 통폐합은 유사학과가 많은 대규모 대학에서는 성공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교육의 방향과 성격이 불분명해 큰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대학 및 학과의 특성화 방안을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하여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교과과정인 아닌 포괄적인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작업이 통폐합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대학이 학부제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차제에 대학원 중심대학(연구 중심대학)과 교육 중심대학 간의 차별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통계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합 후 교과과정에서 통계과목의 필수화 또는 배정과목수를 증대시키는 등의 전략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정보사회에서 통계 전공의 매력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계학의 응용적 측면을 강조함과 동시에 주입식 위주의 이론 통계학 강의가 아닌 실제 상황에서 통계학의 적용사례 등을 교안으로 정립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또한, 통계학의 위상정립의 한 방편으로 과명의 개칭(예를 들어, 정보과학과, 자료과학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즉, 통계학이 수학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일반 대중에게서 지워야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학부제를 시행하는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의 소속학과가 없는 관계로 학생들에 대한 통제 및 지도가 어려울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때와는 양상이 다르겠지만, 특히 정치 및 사회 불안 요소가 대규모 학생 시위를 촉발시킬 경우 학내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6. 각 대학별 통계학 진행 상황(1995.9.1 현재)

	학부제	학과통합 등	논의/관망 중	논의없음	합계
국립	5	2	3	4	14
사립	4	8	14	12	38
합계	9	10	17	16	52

	학부제	학과통합 등	논의/관망 중	논의없음	합계
자연계	8	6	14	12	40
상경제	1	4	2	5	12
합계	9	10	16	17	52

- 강릉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국립: 논의없음.
-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국립: 수리학부(수학과+통계학과)를 신설하여 3학년 때 전공 분리하는 안이 유력.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사립: 논의없음.
-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응용통계학과, 사립: 경제학과와 통합하는 안이 유력했으나 현재는 타 대학의 상황을 관망 중.
- 경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전산통계학과, 국립: 통계 전공은 산업공학이나 경영학으로 흡수되고, 전산은 컴퓨터공학부로 흡수되어, 전산통계학과는 없어짐.
-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국립: 현재 수리과학부(수학과+통계학과)로 운영 중이나,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가기 위하여 96학년도부터 자연과학대학 내 모든 학과를 기초과학부로 통합하여 운영키로 함. 전공 선택은 완전히 학생 자율로 함.
- 경성대학교 이과대학 전산통계학과, 사립: 통계는 수학과 통합하여 수리과학부가 되고 전산은 컴퓨터공학과와 독립학부를 구성키로. 전공은 3학년 때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
- 계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사립: 수학과와 통합하여 수학·통계학과를 만들고 3학년 때 전공 분리키로 하였으나, 최근 학부제 도입을 검토중.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통계학과, 사립: 논의없음.
-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국립: 논의없음.
- 단국대학교 이과대학 전산통계학과, 사립: 논의없음.
- 대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사립: 논의 중이나 모든 결정은 학교당국에 위임키로 함.
-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사립: 논의 중.
- 대전대학교 이과대학 통계학과, 사립: 수학과와 통합하여 신입생모집, 3학년때 분과할 것을 고려하던 중, 교육부 정책에 따라 학부제 실시로 방향 선회. 현재 논의 중.
- 덕성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사립: 수학과와 통합.

- 동국대학교 이과대학 통계학과, 사립: 학과통폐합대신 교과과정을 조정하여 유사과목을 통합하고 전공필수를 없애고 최소 전공학점을 36학점으로 결정하여,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서 통폐합의 효과를 얻기로 함. 학부제는 96학년도에 고려하기로.
- 동덕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사립: 유관 학과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전략하에 전산학과와 계산통계학과를 전산과학대학으로 편입.
- 동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사립: 전자계산학과와 통합하여 과명이 전산통계학과로 개칭됨.
-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응용통계학과, 사립: 논의 중.
- 동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전산통계학과, 사립: 논의없음.
- 목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응용통계학과, 사립: 논의없음.
-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국립: 자연과학부의 단일 학부제 실시.
- 부산외국어대학교 이공대학 통계학과, 사립: 논의없음.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국립: (치)의예과를 제외한 자연계 전체가 학부제로 운영됨. 전공별 최소 전공학점은 21-24 학점 정도. 구체적 시행 방안은 현재 논의 중.
-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통계학과, 사립: 경제학과, 무역학과의 일부, 농경제학과, 통계학과를 통합하여 경제학부를 구성하고, 경제학부에 경제전공과 통계전공을 두기로 결정.
- 성신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사립: 논의없음.
- 세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응용통계학과, 사립: 수학과와 통합하고 자연과학대학 소속으로 전환. 과명은 수학·응용통계학과.
- 수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응용통계학과, 사립: 논의없음.
- 숙명여자대학교 이과대학 통계학과, 사립: 논의 중.
- 숭실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사립: 논의없음.
- 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국립: 학교당국에서는 학부제를 중용하나 자연대학에서는 반대. 계속 논의 중.
- 안양대학교 통계학과, 사립: 논의없음.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사립: 경영, 경제, 통계를 묶어 상경계열로 함.
- 영남대학교 이과대학 통계학과, 사립: 학부제를 논의 중.
- 원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사립: 수리과학부(수학+통계학+수학교육) 신설.
-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사립: 자연과학부(수학+통계+물리+화학+생물)를 신설. 전공은 2학년 1학기말에 분리. 구체적 시행 방안은 논의 중이나, 총 이수학점을 120학점으로 줄이는 문제를 검토중.
- 인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사립: 전산학, 수학, 통계학, 물리학을 한 군으로 신입생 모집. 2학년때 분과.
- 인하대학교 이과대학 통계학과, 사립: 논의했으나 하지않기로 결정.
-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국립: 논의없음.
- 전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국립: 논의 중.
- 전주대학교 경상대학 통계학과, 사립: 응용통계학과로 개칭후 과로 존재. 실제적인 변화없음.
- 전주우석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사립: 논의없음.
-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전산통계학과, 사립: 논의 중.
-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사립: 논의없음.
- 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국립: 논의했으나 하지 않기로.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응용통계학과, 사립: 논의 중. 학과의 성격을 유지하되 수학과나 경제학과와 학과통합을 예상.
-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국립: 자연과학부의 단일 학부제를 실시키로.
-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국립: 관망 중. 일단 1995년중에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 되, 장차 전국적인 추이와 학내 주변상황및 교육개혁의지를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연과학부 응용통계학과, 국립: 전산과와 통합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음. 과명을 개칭하는 방안도 검토 중.
-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사립: 논의 중.
-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응용통계학과, 사립: 논의없음.
- 한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사립: 논의 중.

7. 참고문헌

-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 및 참고설명자료: 보도자료 I (설명중심), 보도자료 II (자료중심), 보도자료 III (문답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4). 「통계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안윤기 편집). 연구보고 제 93-6-128 호.